

WEB CONTENTS



2024년 05월 07일 05시 58분



여수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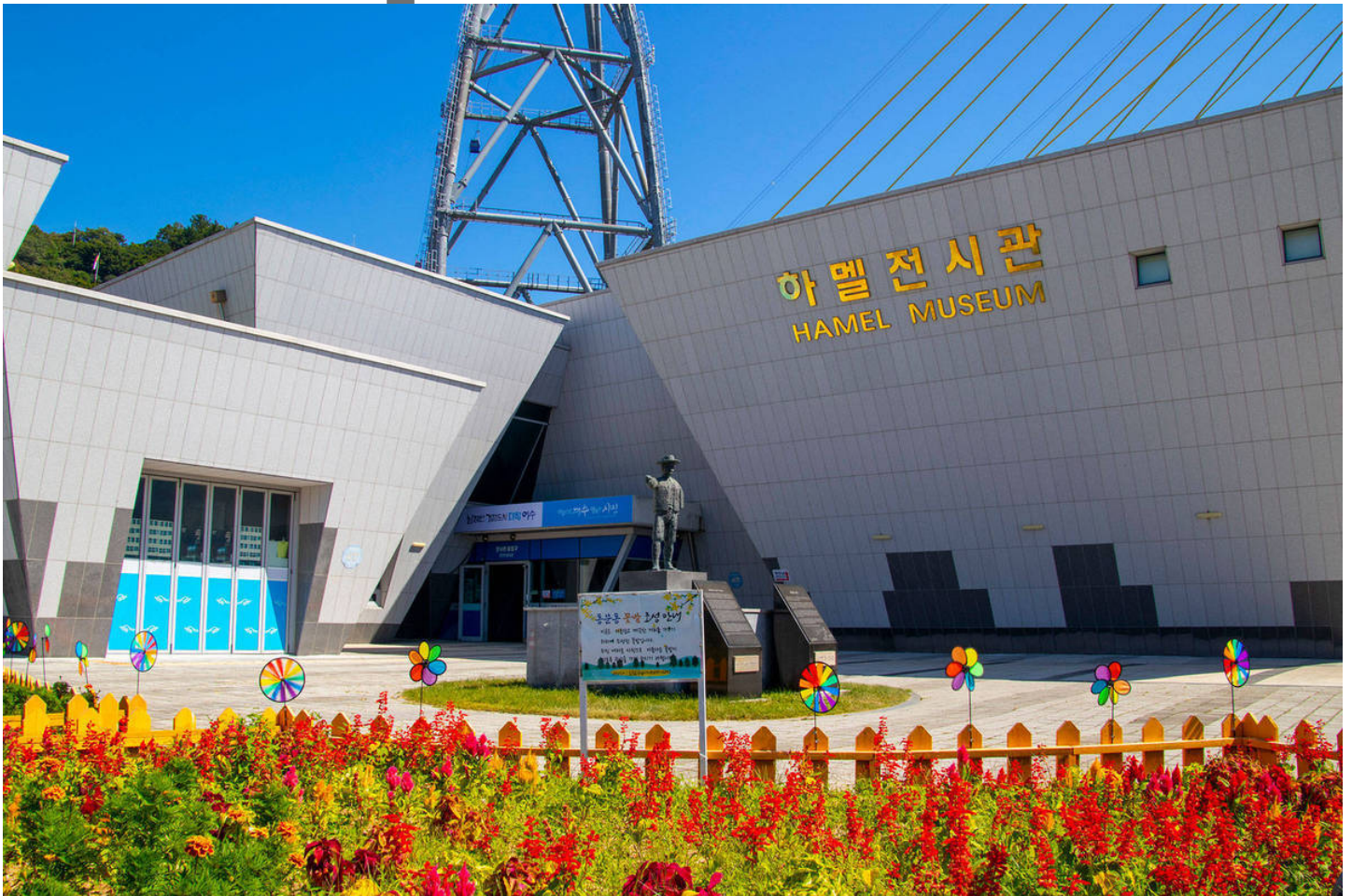
목차	2
사진갤러리	3
하멜전시관	3
첨부파일(5)	3

하멜 전시관

작성일 2023.05.02 13:58 | 작성자 | 조회수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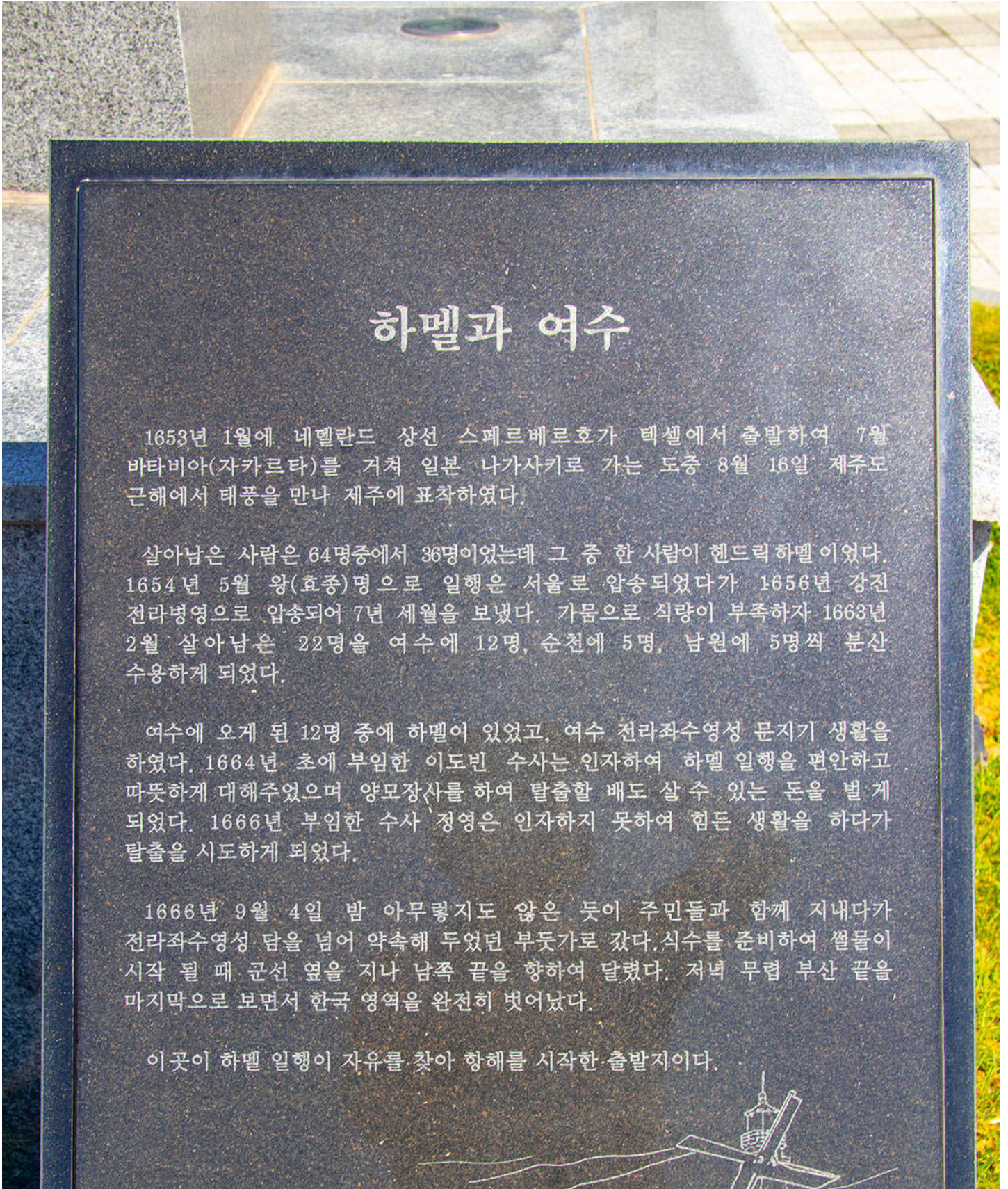
첨부파일(5)

- 하멜 전시관 1.jpg 808.9 KB [DOWNLOAD]
- 하멜 전시관 2.jpg 532.4 KB [DOWNLOAD]
- 하멜 전시관 3.jpg 506.1 KB [DOWNLOAD]
- 하멜 전시관 4.jpg 539.3 KB [DOWNLOAD]
- 하멜 전시관 5.jpg 1.02 MB [DOWNLOAD]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하멜과 여수

1653년 1월에 네델란드 상선 스페르베르호가 텍셀에서 출발하여 7월 바타비아(자카르타)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8월 16일 제주도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제주에 표착하였다.

살아남은 사람은 64명중에서 36명이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헨드릭 하멜이었다. 1654년 5월 왕(효종)명으로 일행은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1656년 강진 전라병영으로 압송되어 7년 세월을 보냈다.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하자 1663년 2월 살아남은 22명을 여수에 12명, 순천에 5명, 남원에 5명씩 분산 수용하게 되었다.

여수에 오게 된 12명 중에 하멜이 있었고, 여수 전라좌수영성 문지기 생활을 하였다. 1664년 초에 부임한 이도빈 수사는 인자하여 하멜 일행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며 양모장사를 하여 탈출할 배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었다. 1666년 부임한 수사 정영은 인자하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1666년 9월 4일 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민들과 함께 지내다가 전라좌수영성 담을 넘어 약속해 두었던 부둣가로 갔다. 식수를 준비하여 썰물이 시작 될 때 군선 옆을 지나 남쪽 끝을 향하여 달렸다. 저녁 무렵 부산 끝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한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곳이 하멜 일행이 자유를 찾아 항해를 시작한 출발지이다.





하멜전시관

목록

COPYRIGHT (C) BY YEOSUCITY. ALL RIGHT RESERVED.

YEOSU CITY
Web Contents

